

택배사, 특별 수송시스템 본격가동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택배사들의 '추석 특수기간' 대비가 시작됐다.

올 추석은 10월 3일(화) 개천절 휴일이 낀 징검다리 연휴이기 때문에 빠르면 9월 30일부터 귀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월, 수요일에 월차를 내면 일주일 가량 연휴를 이용할 수 있는 즐거운 명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택배업체로서는 그만큼 바쁘다고 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퀵서비스, 119 긴급배송반, 콜밴 등 다양한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빅3 택배사인 현대택배, 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을 비롯하여 기타 택배사들은 추석 특별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올해에도 풍성한 한가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현대택배, 추석 특별 수송시스템 본격가동 - 추석 일일물량 55만박스 전망

현대택배는 올 추석이 다가올수록 추석 특수 채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명절에도 가장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바쁜 택배사.

현대택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종합비상상황실을 가동하고, 추가 차량 및 인력배치를 조정하는 등 수송체계를 추석 특별수송시스템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면서, 추석 특수에 대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부터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추석 일주일전에는 취급물량이 피크를 이룰 것으로 보고, 배송물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9월18일부터 10월2일까지를 추석 특별수송기간으로 운영할 계획.

이에 따라 1500여대의 차량을 추가투입하고 터미널

분류인력을 40% 추가 배치하는 한편, 콜센터에도 60% 증원된 상담원 인력을 투입해 고객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본사 사무직 직원 500여명도 현장에 투입된다.

또 24시간 종합비상상황실을 운영, 터미널 긴급시설 복구 및 예비 배송인력 지원 등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추석배송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현대택배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추석물량이 평소보다 19% 늘어난 45만박스에 이르고, 25일부터 10월2일까지는 40%이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택배의 평소 일일 처리량은 업계최대인 38만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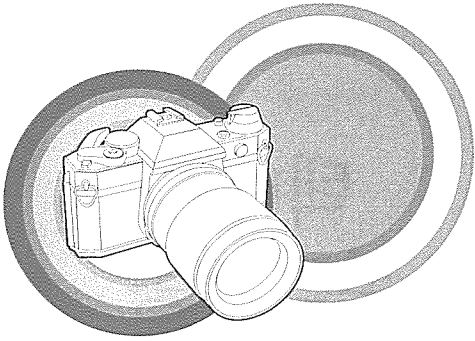
한편 현대택배는 이번 추석배송 작전에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교통체증이 심해 제때 배송을 못하는 곳은 기동성이 뛰어난 퀵서비스를 연계해 배송하고, 당일 지방으로 배송돼야 하는 긴급 택배화물은 항공택배를 이용해 공수할 계획. 항공택배는 하루만에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어 급한 물건을 보내는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을 뿐 아니라 요즘같은 명절특수기에는 이용이 평소보다 5배이상 증가하고 있다.

현대택배는 물량이 한꺼번에 집중될 경우 콜밴, 용차 및 직원차량까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대택배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보름정도 늦게 찾아온 올 해 추석은, 실질적으로 귀성이 9월30일부터 시작돼 물건이 안전하게 원하는 날짜에 도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4일전인 9월27일까지는 택배 발송을 마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추석특별수송기간에 국내에서 배송되는 하루평균 물동량은 전년 추석의 230만박스에서 30%



증가한 300만박스, 추석기간 전체로는 전년 3450만 박스에서 1050만박스가 증가한 4500만 박스가 전국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택배는 지난해 추석기간중 하루 45만3천박스를 처리해 국내 최고물량을 기록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22%가 증가한 55만박스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대한통운,

“추석 택배접수, 25일 이전에 여유있게”

- 택배 물량 평소보다 최대 30% 이상 급증
- 귀경 일정상 시간 급할 땐 24시간 접수 가능한 ‘편의점 택배’ 이용하면 편리



대한통운(대표 이국동, www.korex.co.kr)은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15일간을 ‘추석 특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추석선물이 대부분인 택배물량의 증가세 역시 귀경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30일 이전인 25일부터 시작되어 28일, 29일 양일간에 최대의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불황기에 중저가의 부담없는 선물이 오히려 늘어났던 예년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특수기간에는 1일 최대 55만 박스를 돌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통운은 이 같은 추석 특수기간에 대비 택배사업 부문 외에도 전 직원이 택배물량처리를 위해 지원에 나서며, 상하차, 분류 등 현장 아르바이트 직원도 추가 증원한다.

특히 회사 측은 올 추석 물량증가에 대비해 대전메인허브 터미널 외에 대전 제2메인 허브터미널을 14일부터 추가로 운영, 두개의 허브 터미널을 운영해 분류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신속한 배송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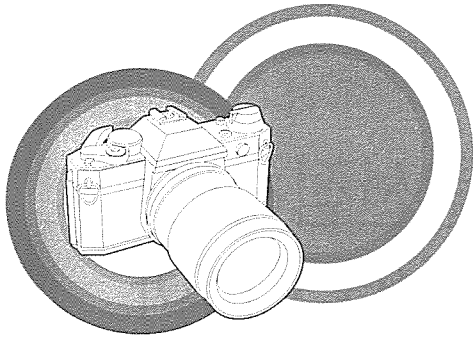
또한 시간을 다투는 물품을 위해 오토바이 퀵서비스와 승합차량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 ‘119 긴급배송반’을 구성하고, 생선, 육류 등 신선물의 완벽한 배송을 위해 냉장냉동차량 2백여 대를 새로 확보해 대비하고 있다.

대한통운은 이달 30일(토)까지 택배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29일 전화(1588-1255)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30일에 집화를 위해 방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과일, 생선, 육류 등 신선식품을 택배로 보낼 때에는 반드시 18일에서 22일 사이에 여유있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한 귀향 일정 때문에 전화로 택배 접수를 하고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통운은 GS25, 바이더웨이, 훼미리마트 편의점 3개사의 전국 7천여 개 점포에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의점 택배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고, 일반 택배와는 달리 5천 원에서 7천 원 사이(30kg 기준)에 모든 물품을 배송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한진, 보름전 서두르세요



한진택배는 올 추석이 징검다리 연휴로 소비자들의 '장기간 부재'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석 전 택배가 도착하려면 보름 전에 예약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택배관계자는 “오는 25일부터 개인택배 예약 접수를 제한할 예정”이라며 “추석 물량 예약이 집중되는 넷째주(18~22일)를 피해 16일 이전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택배 빅4사의 경우, 성수기 택배가 시작되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일 평균 30~38만 박스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물량 집중이 본격화되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일 평균 55만 박스에서 일 최고 60만 박스까지 내다보고 있다.

김규창 한진 택배운영기획팀장은 “추석 성수기의 경우 평상시 보다 150~200% 까지 택배 물량이 늘어난다”며 “원활한 배송을 위해 배송차량을 기존 2,900대 보다 32% 늘린 890여대의 임시 차량과 전국 터미널에 현장 분류작업 인원(임시직/아르바이트)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택배(1588-0011)는 올 초에 배송사원에게 지급한 PDA와 실시간 물류 관제시스템 등 첨단 IT 장비

운영을 통해 물류 효율을 높이고 있다. 고객에게 “현재 주문한 상품이 어디쯤 가고 있으니 몇 시쯤 도착한다”는 식으로 정확한 배송 시간과 지연 상황을 통보해 ‘기다리지 않는 택배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것.

또 GIS(위치정보시스템), GPS(지리정보시스템) 기능이 탑재된 PDA를 보유한 한진택배 사원들은 수백건의 배송 경로를 최적화하고, 최단 거리 경로를 제공받아 배송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CJ GLS, 중추절 특수 준비 만전

CJ GLS (대표이사 민병규 www.cjgls.com)은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18일간(연휴제외) '중추절 특수 기간'으로 정하고 중추절 맞이 준비에 들어간다.

CJ GLS는 우선 이 기간 동안 '특수 운영 전담반'을 설치 운영한다. 이 전담반은 고객의 선물을 안전하게, 정확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지원 및 긴급 상황 발생에 대한 처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CJ GLS 택배사업본부 전 임직원은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하며, 내근 직원들도 이 기간 동안 배송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물류**

